

고 위험 임산부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네다



국내 태아치료 분야 권위자인 원혜성 교수는 엄마 배 속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태아들을 치료하며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희망과 같은 존재가 됐다.

국내 태아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는 만 35세 이상 고령임산부, 다태아 임신부 등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희망’과 같은 존재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조직위원장으로, 태아치료센터 소장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심장정밀진단과 태아치료 분야의 지평을 연 원 교수는 작은 생명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 세상의 빛을 볼 때 감사하다. “환자에게 정직하고, 따뜻하며, 위로가 되는 의사이고 싶다”는 원혜성 교수는 다시 태어나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다.

국내 태아치료의 지평을 열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원혜성 교수가 산부인과 의사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의 출산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마음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면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1990년, 이화여대 의대 졸업과 동시에 서울아산병원 인턴 근무를 시작한 원 교수는 산부인과 전공의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다.

원혜성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이 나를 키워준 텃밭이었다”고 말한다. 당시 산부인과 초대과장이었던 목정은 교수는 부인암 전공을 원했던 원 교수에게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산과를 권유했고, 산과정

밀 초음파를 영상의학과에서만 보던 시절 그 분야 권위자인 유시준 교수에게 태아심장 초음파를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산과 파트장이었던 김암 교수 역시 환자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모습 자체로 제자였던 원 교수의 롤모델이 되었다.

태아심장을 볼 줄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거의 없던 시절, 원 교수는 전문의 3~4년차에 이르러 태아심장 초음파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그러나 진단에서 끝날 뿐, 태아치료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초음파 소견 상 태아의 병명이 이러하니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아픉니다’라는 말로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황망하고 미안했어요. 출산 후 치료 가능한 병도 있지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치료해야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병도 있었기에 독학으로 태아치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의 사례와 논문들을 찾고 잠을 쪼개가며 태아치료를 공부한 원 교수는 태아의 심장이 빨리 뛰는 ‘태아 빈맥’ 치료에 성공한다. 빈맥치료제인 ‘디곡신(Digoxin)’을 임산부에게 투여해 태아를 치료하는 방식이었다. 원 교수는 만약 그때 첫 치료에 실패했다면 태아치료를 멈췄을지도 모른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그 일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태아치료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아기가 가장 처음 만나는, 좋은 사람

원혜성 교수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태아치료의 메카라는 미국 UCSF(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캠퍼스)로 연수를 다녀왔다. 복귀 이듬해인 2004년 서울아산병원에 국내 최초로 '태아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상태가 위중한 고위험 임신부들은 태아치료센터의 개소식을 만났다.

쌍태아간수혈증후군은 쌍태아 각자에게 흘러가는 혈류량의 차이로 생기는 질환이다.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여 혈액을 공급받는 일란성 쌍태아 중에서 혈류량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피를 많이 가져가는 태아는 심장에 부담이 와 몸이 붓고 양수가 늘어나는 반면, 피가 부족한 태아는 몸이 쪼그라들고 양수도 적어진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약 80%에서 태아 모두 목숨을 잃기도 한다.

원혜성 교수는 쌍태아간수혈증후군을 태아내시경 수술로 치료한다. 임신부의 배에 지름 2mm가량의 태아내시경을 넣어 태아들이 공유한 혈관들을 레이저로 소작해 각각 혈액을 공급받게 하는 방식이다.

“쌍태아간수혈증후군은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예방할 수 없어 임신 16주부터는 2주마다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은 할 수 없지만 일찍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2011년 말 도입한 쌍태아간수혈증후군 시술은 국내 최다 시술로 249건(태아 498명)을 넘어서고 있다.

태아의 흉부, 복부, 방광 등에 물이 차는 태아수종의 경우 태아의 몸에 직접 의료도구를 삽입하는 '섀트(Shunt) 시술(태아단락술)'을 통해 체내에 차 있는 물을 양수 쪽으로 빼내 치료한다. 원혜성 교수는 국내 최대 섀트 시술(543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예후는 외국의 치료성과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태아심장 초음파에 AI를 접목, 태아 심장을 자동화해서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에 양쪽 폐에 물이 가득차고 심한 수종이 있는 아기에게 첫 섀트 시술을 했습니다. 아기 부모님께 우리나라에 섀트 시술을 해본 의사가 없고 저 역시 첫 시술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다행히 맡겨주셨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아기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와 포기하지 말라며 오히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합니다. 이런 보호자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혜성 교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서울아산병원의 훌륭한 의료진들이 함께 해주었다고 말한다. 어린이병원의 신생아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외과

와의 협진, 훌륭한 간호팀의 지원이 있었기에 귀한 생명들을 함께 살릴 수 있었다. 원 교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태아치료센터를 거쳐 간 전문의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다.

아기 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원혜성 교수는 동시에 다수의 환자를 지켜야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지고 있다. 매번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때로는 산모를 위해 태아를 포기하거나 쌍둥이 중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하니 마음의 부담은 배를 넘는다. 원 교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의 과정에서 보호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의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이라 여긴다.

힘들어서 산부인과를 그만두겠다는 후배에게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이야기 한다는 원혜성 교수. 산부인과 의사라는 자리가 여러모로 녹록치 않지만 생명의 잉태부터 탄생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만큼 값진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원 교수는 힘들고 지칠 때면 갓 태어난 아기들의 방을 순회한다. 자신의 품에 안겨 세상과 처음 만나는 아기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힘의 원천이라 말하는 원혜성 교수는 다시 태어나도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싶다. 📖 글 이지연



다시 태어나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원혜성 교수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가장 처음 만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